

## “中國共產運動에 있어서 農村基地에 대한 研究動向”\*\*

崔 明\*

내가 지난 1981년 2월 6일 東亞文化研究所의 集談會에서 발표한 것은 그 제목과 연관된 깊은 研究가 있어서 무슨 研究의 결과를 소개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1978년 여름 「東亞文化」 이번호에 실린 “Military Organizations and Mass Mobilization in Chinese Soviet Republic”이라는 논문을 들고 하바드 大學의 페어뱅크 研究所에서 개최된 워크숍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 워크숍은 “Chinese Rural Bases, 1921~1949”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 발표는 그 워크숍의 주제 제안(proposal)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나의 당시 關心事는 江西時代(1931~1934)의 紅軍이었다. 江西時代의 紅軍자체가 研究의 對象이 될 수 있고, 미비한 것이지만 그 논문도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江西時代의 紅軍에 관한 研究는 결국 그것이 中國共產黨史에서 어떠한 意味를 갖느냐,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共產黨의 궁극적인 勝利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맥락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中國共產黨의 農村基地에 관한 워크숍도 그러한 취지에서 모이게 된 것이었다.

1949년 이후 中共政權의 性格을 규명하기 위하여 學者들이 크게 논의한 爭點은 크게 보아 세가지로 집약이 된다. 첫째, 소위 毛澤東主義

\* 서울大學校 社會大 副教授(政治學)

\*\* 이 글은 1981년 2월 6일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Maoism)와 正統的인 共產主義理論과의 關係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 둘째 中共政權의 性格이 中國的 要素의 現代적 變형이나, 아니면 전혀 異質的인 外國的 要素의 產物이나 하는 문제, 그리고 세째는 中國共產黨의 勝利의 原因이 과연 무엇이나 하는 문제였다. 農村基地에 관한 研究는 어느 정도로 위의 세가지 爭點과 모두 연관된 것이지만, 그것은 특히 세째의 爭點과 직결된 문제로 볼수 있어서, 나는 中國共產黨의 勝利와 關連된 문제를 중심으로 그에 관한 歐美의 研究動向을 소개했던 것이다.

中國共產黨의 勝利에 관심을 둔 學者라면 우선 존슨(Johnson)의 著書를 읽지 않을 수 없다.<sup>1)</sup> 존슨의 著書가 學界에 던진 충격과 그 主張의 重要性은 대단한 것이어서, 사실상 그것은 그후 中國共產黨史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學者들에게 연구의 經驗적인 基礎를 제공했던 것이다. 특히 共產主義者들의 成功의 어떤 側面을 추구하는 學者들은 존슨이 제기한 이슈와 그가 처음으로 表出했던 共產黨의 勝利에 대한 假定을 문제 삼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존슨의 著書는 中國革命에 대한 그후의 많은 研究를 자극했고, 어느 程度로는 研究의 方向까지를 규정했던 것이다.

존슨 이후 中國共產黨史에 관한 研究는 크게 보아 經驗的인 研究와 理論的인 主張으로 나눌수 있다. 존슨에 대한 지나친 讚辭일지는 모르나, 사실 中國共產黨史의 研究 혹은 中國革命에 대한 研究는 존슨 이후에 큰 進前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中國革命過程에 대한 經驗的인 研究는 많이 진척되었고, 共產黨이 무엇을 했는가는 많이 밝혀 졌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解答을 제시한 것은 별로 없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존슨의 主張과 이에 關連된 論議의 背景을 살펴 보기로

1) Chalmers A. Johnson,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37-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한다. 존슨의 기본적인 主張은 中國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의 成功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抗日戰爭期間(1937~1945)에 발생한 諸事件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期間동안에 中國共產黨은 소위 大衆民族主義(mass nationalism)를 자극시켰고, 그 결과로 혹은 그 過程에서 전국적인 政治權力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존슨의 主張에는 共產黨의 成功의 본질과 그 쏘스에 관하여 概念上的의 문제와 年代上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後者の 문제, 즉 年代上的의 문제를 먼저 소개하면, 그것은 共產黨의 최종적인 勝利에 대한 決定的 時期가 언제냐는 것이다. 말하자면, 抗日戰爭時期는 共產黨의 그후의 勝利와는 必要不可缺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共產黨의 궁극적인 成功의 쏘스를 찾으려면 1937~1945년 사이를 分析하면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 以前の 中國共產主義 運動은 成功의 起源과 쏘스에 관한 한 失敗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다음, 前者의 문제, 즉 概念上的의 主張은 年代上的의 分析을 수행하기 위한 方法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존슨은 결국 農民의 態度를 分析하고 있는데, 그것은 광범하고 低邊的인 農民의 支持를 획득한 것이 共產黨의 成功의 열쇠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支持는 日本에 대한 抵抗에 힘입은 것이며, 그 支持가 또 抗日戰爭이후 共產黨의 正當性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인데, 共產黨이 大衆의 支持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大衆에 대한 그 呼訴力이 효과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존슨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그 呼訴力의 본질이 民族主義的이었다는 點이다. 따라서 그의 主張은 抗日戰爭 전에 시도되었던 土地改革을 중심으로 획책되었던 社會經濟的인 共產黨의 「어필」은 사실상 失敗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共產黨의 成功을 규명하기 위하여 抗日戰爭전의 共產主義 運動을 분석해 보아야 所用이 적다는 것이다.

존슨의 前記 著書이후 中國共產革命에 관한 논의는 대략 세가지 측면—概念的, 年代的, 그리고 地理的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먼저

概念的인 側面을 살핀다면, 대부분의 學者들은 존슨이 주장한 農民의 態度를 인정하고, 共産黨이 광범한 大衆의 支持를 얻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점을 받아 들인다. 그러나 그러한 支持를 설명하는 理由에는 差異가 있다. 그리하여 최초의 논의는 共産黨이 구사했던 決定的인 「어필」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作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길린(Gillin),<sup>2)</sup> 셀든(Selden),<sup>3)</sup> 비앙코(Bianco),<sup>4)</sup> 다카오카(Takaoka)<sup>5)</sup> 등은 社會經濟的 「어필」보다 民族主義的 「어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존슨의 主張에 회의를 표시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共産黨의 成功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이한 종류의 「어필」을 강조했던 것이다. 或者는 예컨대 抗日戰爭시기의 共産黨의 農村政策이 소비에트 시기의 그것보다 온건했으며, 그것이 農民에 대한 강력한 「어필」로 작용했다고 主張한다. 또 或者는——특히 셀든과 다카오카——抗日戰爭 시기의 農村政策이 완전한 社會革命을 의미했고, 따라서 소비에트 시기와 마찬가지로 革命的이고 社會的인 「어필」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들도 民族主義의 概念 혹은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立場은 共産黨의 社會經濟的 政策이 중요한 大衆的 支持를 유도하는데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실상 共産黨의 「어필」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존슨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學者들은 共産黨의 프로그램과 政策에는 民族主義的인 「어필」과 社會經濟的 「어필」兩者가 있었다는 것에 의견의 一致를 보이고, 다카오카의 著書는 이 兩者의 關係를 엄밀하게

2) Donald G. Gillin, "Peasant Nationalism in the History of Chinese Communism—Chalmers A. Johnson,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XIII (1964), pp. 269-289.

3) Mark Selden, *The Yen-an Way in Revolutionary Chi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4) Lucien Bianco, "Peasant and Revolution: The Case of China",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 II (1975), pp. 313~35와 *Origins of the Chinese Revolution, 1915~194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1).

5) Tetsuya Takaoka, *Resistance and Revolution in China: The Communists and the Second United Fron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평가하려고 시도한 唯一한 業績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카오카를 읽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의 主張이 어딘지 미심하여 설득력이 적다는 것이다(發想과 着眼은 좋았지만, 결국 책을 잘 못 쓴 것이 분명하다).

中國共產運動에 있어서 「어필」에 관한 문제를 가능한 범위에서 中國 全域과 革命의 全時期에 걸쳐서 연구한 것도 있다. 그 例가 호프하이츠(Hofheinz)의 中國革命에 대한 生態學的 研究이며, 그는 조잡하기는 하지만 中國共產黨史家가운데는 드물게 計量的인 接近을 시도했었다.<sup>6)</sup> 호프하이츠의 발견은 共產黨의 成功과 社會經濟的 내지는 民族主義的 「어필」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없다는 것이며, 그것도 農村地域의 相異한 地方的 條件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실질적인 大衆의 支持를 유도한 「어필」로서 共產主義者들의 組織力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프하이츠는 共產黨의 成功에 있어서 組織의 중요성을 강조한 비교적 初期의 學者라고 할 수 있다.

셀든도 어느 의미에서 호프하이츠와 동일한 系列에 속한다. 그는 既存의 農村 엘리트의 붕괴와 農村의 政治經濟의 變革에 대한 共產黨의 政策을 詳述하고, 大衆路線이라는 「리더십 스타일」을 강조했던 것이다.<sup>7)</sup>

組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해리슨(Harrison)도 여기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의하면 共產主義者들의 勝利의 열쇠는 社會經濟的이고 동시에 民族主義的인 정책과 「어필」을 통하여 中國 人民을 組織할 수 있었던 共產主義者들의 能力이라는 것이다.<sup>8)</sup>

6) Roy M. Hofheinz, Jr., "The Ecology of Chinese Communist Success: Rural Influence Patterns, 1923~1945," in A. Doak Barnett (ed.),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9), pp. 3-77과 *The Broken Wave: The Chinese Communist Peasant Movement, 1922-1928*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7) Selden, *op.cit.*

8) James P. Harrison, *The Communists and Chinese Peasant Rebellions: A Study in the Rewriting of Chinese History* (New York: Atheneum, 1969)과 *The Long March to Power: A Histo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1921-1972* (New York: Praeger, 1972).

요컨대 組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學者들의 假定은 각종의 「어필」이 人民의 충분한 支持를 창출해 내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共産黨의 課題는 人民의 支持와 安定된 共産權力을 연결시키는 組織上의 構造의 건설작업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연구는 존슨이 제기한 문제——즉 抗日戰爭시기에 共産黨이 어떻게 압도적인 人民의 支持를 얻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다소 다른 입장에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 대체로 말하여 그들은 共産黨의 成功에 기여한 要素들을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要素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득력있고 보다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둘째는 年代的인 側面이다. 위에서 언급된 主張들은 共産黨의 成功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國內的 要因을 주로 취급한 것이다. 즉 共産主義者들의 勝利를 革命에 알맞은 戰略의 定立과 관련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主張은 外部的 要因이 담당했던 役割에 대하여 정확한 고려가 없이 제시되었다. 위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學者들은——예컨대 존슨, 비앙코, 다카오카 등—— 外部的 要素로서 日本의 侵略의 決定的인 役割을 강조한다. 日本의 侵略이 결국 共産黨으로 하여금 그 戰略을 구사하기에 지극히 有利한 環境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요 假定은 日本의 侵略이 抗日戰爭시기와 그以前的 時期와의 결정적인 環境上의 差異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예컨대 존슨과 비앙코는 그것이 共産黨의 팽창을 가능케 했던 政治的 空白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또 다카오카는 그것이 國民黨의 위협으로 부터 共産黨을 구원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日本의 侵略이라는 外部的 要因의 등장은 中國革命에 대한 研究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 따라서 抗日戰爭時期가 共産革命의 年代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時期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1937년 이전의 共産運動을 연구하는 學者들도 그 以前的 運動은 共産黨의 成功이라는 次元에서 볼때 抗日戰爭時期的 前奏曲 내지는 練習期에 불과하다고 과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 1945년 이후를 연구

하는 學者들도 國共間의 內戰時期(1945~1949)를 일종의 蛇足的인 현상으로 보려는 것이다.<sup>9)</sup> 그래서 예컨대 길린과 같이,<sup>10)</sup> 소비에트 時期의 土地政策이 실질적으로 農民의 支持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學者들도 과격한 農村改革으로서 抗日戰爭시기의 農村政策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 1937년 이전을 연구하는 다른 學者들가운데도 組織 내지는 軍事 戰略의 효율적인 계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예컨대 金一平<sup>11)</sup>과 로트베이트(Lötveit)<sup>12)</sup>와 같이 江西時期의 組織方法을 주로 연구한 學者들은 그것이 抗日戰爭시기에도 有效했다는 主張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中國革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 1937년 이전의 共產運動을 연구하는 學者들의 공통된 先入見 혹은 病弊는 共產運動의 궁극적인 成功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共產運動을 보려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37년 이전의 共產黨의 革命史와 革命經驗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선풍적인 分析만을 유발시켰음을 증명한다. 이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抗日革命時期와 農村運動時期의 差異를 지적할 때, 共產黨의 組織方法의 實驗이나 適用이나 하는 문제와 革命成就에 유리한 外部的 要因의 등장이나, 아니냐는 문제만을 曰可曰否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예컨대 사실상 共產主義 運動이전 부터 있어온 다른 여러 條件들이 共產黨의 農村經驗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은 既存의 農村의 社會構造, 農村의 經濟狀態, 내지는 傳來의 農民組織등의 役割을 등한시했던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中國의 民衆運動史에 관한 웨이크먼(Wakeman)의 논문이 시사하는 바가

9) Suzanne Pepper, *Civil War in China: The Political Struggle, 1945-1949*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참조.

10) Gillin, *op.cit.*

11) Ilpyong J. Kim, *The Politics of Chinese Communism: Kiangsi under the Soviet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12) Trygve Lötveit *Chinese Communism, 1931-1934: Experience in Civil Government* (Lund, Sweden: Studentlitteratur, 1973).

크다고 생각한다.<sup>13)</sup>

세째로 地理的 側面의 문제이다. 위에서 지적된 概念的 문제와 年代的 문제는 모두 사실상 資料의 有無에 따라 그 연구가 크게 左右되었다. 예컨대 農村時期는 주로 華南地方의 資料, 그리고 抗日戰爭時期는 주로 陝甘寧地方이나 잘해야 晉察冀 邊區地方의 情報에 크게 의존해서 연구되었다. 물론 다른 地域에 대한 연구가 없는것은 아니나, 어쨌든 이러한 制限된 資料를 가지고 中國全域 또는 革命의 全時期의 무엇을 一般化하기는 不可能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從來의 많은 研究는 部分을 가지고 全體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中國의 共產主義 革命 혹은 그 革命의 成功의 竝스에 관하여는 아직도 개척해야 할 것이 많다. 이제까지 많은 研究가 발표되었지만, 그 연구의 결과들을 비교하고, 가능하면 그것으로 부터 잠정적인 결론도 얻어내고, 또 體系的인 假說들을 좀더 설정하여 새로운 研究의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學問分野가 홀로 담당할 수 있는 作業도 아니고, 政治學, 歷史學, 人類學, 經濟學, 혹은 社會學등의 共同研究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3) Frederic Wakeman, Jr., "Rebellion and Revolution: The Study of Popular Movements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XXVI (1977), pp. 201-237. 이 논문은 「中國 民衆運動史 研究動向」라는 제목으로 吳金成 교수에 의하여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됨 [東아시아 研究動向 調査叢刊, 第6輯(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 1979)].